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22일(수) 총 6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재활용팀장 홍 성 이 ☎440-3571 • 담당자 윤 신 원 ☎440-357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커피박 재자원화 위한 지자체 간 연계 시스템 구축

- 인천시, 환경부 · 경북 · 현대제철 · 한국생산성본부 · 환경재단과 협업 -  
 - 커피박 재자원화 통한 경제 · 사회 · 환경적 가치 창출 -

지자체 최초로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천시가 이번에는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정부 · 지자체간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22일 환경부, 경상북도, 현대제철,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재단과 함께 커피박을 재자원화 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에서 수거한 커피박을 경상북도에서 친환경적으로 재자원 하는 모델로, 그동안 인천시에서 수거된 커피박 대비 사용량이 저조해 대량 소모 기술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프로젝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생활폐기물(소각, 매립)로 버려지고 있는 커피

박을 민·관이 협력해 재자원화 하겠다는 의지로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해 지자체 간 최초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 : 커피박의 지속적 재자원화를 위한 안정적 사업 모델 발굴

▲경상북도 : 커피박으로 축사의 악취를 줄이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 재자원화 실현

▲환경부 : 커피박의 효율적 재자원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현대제철·한국생산성본부·환경재단 : 기금 출현과 재자원화 프로젝트  
운영 시스템 구축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는 커피박을 활용해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20년부터 본 프로젝트를 시작해 공공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재자원화 하는 체계를 만들어 왔다.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커피 찌꺼기)로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g의 커피원두가 사용되며 이중 14.97g, 즉 99.8g의 원두가 커피박이 되어 생활폐기물로 소각 또는 매립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하루에 1잔 꼴이며, 이는 세계 평균 소비량인 132잔의 약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국내 커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인 ‘커피박’의 처리 부담 또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

이기에 커피박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 및 처리방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해에도 관내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지속 확대해 5개구(중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서구)의 커피전문점 431개소를 대상으로 커피박 120톤을 수거하고 재자원화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 수거된 커피박 중 63.8톤이 커피박연필(9만 개)과 커피박 데크(850개)로 재탄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는 등 재자원화를 통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했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민·관협력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운영 지원을 통해 선도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1월 12일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기관과 함께 '21년 사업성과 및 '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붙임〉 1. 기관별 협약사진 1부.  
2. 협약문안 1부.

## 붙임1

## 협약기관 사진자료

		
<p>환경부 장관</p>	<p>인천광역시장</p>	<p>경상북도 도지사</p>
		
<p>현대제철</p>	<p>한국생산성본부</p>	<p>환경재단</p>

##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버려지던 커피박을 수거 및 재자원화하여 새로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참여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증가하는 커피박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자원화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 역할)** 협약 당사자는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상호 역할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1. 인천광역시시는 각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커피박이 수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재자원화되는 커피박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경상북도는 인천시에서 수거된 커피박을 활용하여 상호 협의된 방식으로 재자원화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3. 환경부는 커피박의 수거 및 재자원화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현대제철㈜는 사업 총괄기관으로서 본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6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행정적·재정적 재원을 지원한다.
5. 한국생산성본부는 사업 운영기관으로서 협약 당사자간 협의와 소통을 통해 선도적인 커피박 재자원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재단법인 환경재단은 사업 운영기관으로서 본 프로젝트의 대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의식을 제고한다.
7.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3조 (업무 협조 등)**

1. 협약 당사자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는 협약 당사자간 상호 승인 없이 제공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정부 또는 사법기관)에는 별도 승인 없이 제공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제4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90일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제 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처리시설 운영 불가, 커피박 재자원화 여건,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 활용 사업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협약 당사자 간에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5조 (협약의 변경 등)**

1.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협약 당사자간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6조 (협약기간 및 효력 발생 시기)**

1.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 협약 당사자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협약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본 협약이 끝난 이후에도 각 협약당사자는 커피박 재자원화 시스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2월 00일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 서 명 )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 서 명 )

 환경부    장관 한정애

( 서 명 )

 HYUNDAI  
STEEL    대표이사  
안동일

( 서 명 )

 kpc The Insight KPC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안완기

( 서 명 )

환경재단  이사장 최열

( 서 명 )